



멕시코

이제 보내는

선교편지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 2024년 11월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돌아보니 열심히 산 것 같으나 후회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 해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해를 잘 마무리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선교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

◆ 파시피코 교회 사역

파시피코 교회 사역은 이곳 티후아나에 있는 한인교회와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출석 교인이 너무 적어서 함께 힘을 모아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면서 현지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를 잘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돕고, 1년에 2~3회 정도 한인교회 교인들도 함께 전도를 하며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도 덕분에 교회의 교인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하였고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교회 목사님이 취직을 하면서 방과후 학교도 토요일과 주일에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일종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방과후 학교를 주중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간식비와 목회 지원금을 보내주었지만 방과후 학교는 다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의 목사님 뿐 아니라, 저희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안에 파시피코 교회에 대한 사역의 방향을 정해야 내년의 사역을 계획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지 목사님이 조금 더 사역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토요일, 주일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역을 위한 기도

저희가 이곳 멕시코의 티후아나에 온지 꼭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의 언어를 배우며, 이곳 문화에 적응하고 또한 선교지로서 어떠한 사역들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같이 참여하여 경험해보았습니다.

한인교회와 협력하며 파시피코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와 전도활동을 했었고, 동료 선교사와 함께 마약재활센터 사역이나, 난민들을 위한 사역들도 같이 참여하여 함께 했습니다.

또한 한글학교를 하면서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직,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언어를 배우고 있는 대학교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전도하거나, 전도용품을 만들어 현지 대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티후아나에 사는 멕시코인들의 생활 수준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고 그런 이유에서 인지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이곳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이곳의 현지 목사님들은 한국인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역 할 만한 현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곳은 지역적인 특성상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되면 이곳에서 직업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숙인이 되고, 또는 범죄의 주요 요인이 되어 치안이 좋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일반인들의 활동 반경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토대로 볼 때 이곳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선교사역은 어린이를 위한 사역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이곳의 현지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어린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대학생들에게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매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곳의 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 일부는 한국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몇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다녀올 정도입니다. 그만큼의 재력도 있지만 그정도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교회나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 사역과 한국 문화를 매개로 하는 전도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공간에 모여서 방과후 학교나, 영어교실, 한글학교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나 센터가 필요합니다.

티후아나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선교센터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를 기도해주세요. †

 예수 사랑! 사람 사랑! 예수 증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4:12)

◆ 한글학교

티후아나 한인교회에서 하반기 한글학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지인과 만나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저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와 함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를 더욱 확장하여 다른 현지 교회에서도 한글학교를 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은 복음을 전하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글 학교가 더욱 확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한글 학교를 지속적인 사역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가족 소식

막내 하민이는 학교 생활을 즐거워 합니다. 머무는 숙소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입니다. 둘째도 이제 휴학이 끝나고 다시 학업을 시작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에 있는 첫째와 셋째는 이제 곧 집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지내고 있는 선교관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을 '부교역자' 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관에서 교회에 가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 있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늘 막차를 타고 집에 옵니다. 밤 12시 1시가 되어 집에 오니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는 것이 아이들의 첫번째 바람입니다. 교회와 가까우며 월세 부담이 적고 모든 집기나 가구들이 갖추어진 곳으로 이사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셋째는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꿈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잘 걸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기도제목

- 언어를 보다 잘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현지인과 환경을 허락하소서.
- 사역을 위한 근거지인 교회, 센터를 허락해 주소서.
- 파시피코 교회를 비롯하여 내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 한글학교를 통해 사역이 확장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선교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파송 교회를 허락해 주소서.
- 첫째와 셋째가 지낼 집을 잘 구하도록 도와 주시고 둘째와 막내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도와 주소서.

후원계좌 한국: 990-090819-582 하나은행 (GP 이병호/최형진)
미국: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714-774-9191 GPUSA